

**<그 이름 요셉>**  
**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**

12/3(주일) 설교 내용

히브리서 11:22

1. 오늘 말씀에 의하면,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고, 그 꿈으로 인해 요셉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. 나에게도 요셉과 같이,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 주시고,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.

오늘 목장교재에는 4가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.  
그 중, 두 번째 주제가 바로 '꿈'에 대한 내용입니다.

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험기왕성한 젊은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, 그에게는 '꿈'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꿈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유혹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(목장교재 중 밑줄 참고)

목원들에게 이런 요셉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,  
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냈던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. 그런데, 혹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.  
인생에서는 성공을 통한 교훈보다 실패를 통한 교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.

2.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. 그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, 또 나에게도 이렇게 '어려운 용서'를 실천해 본 경험이 있거나,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용서를 실천해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4가지 주제 중, 가장 마지막 주제인 '용서'에 대한 내용입니다.

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,  
내 인생을 돌이켜 보며,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했듯이 실천하기 힘든 용서를 실제로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도록 해주시고, 시도는 했으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도 편하게 나누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하지만! 결론적으로는, 우리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과 그 상황조차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점을 짚어 주시고, 결코 쉽지 않지만 용서를 실천해 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3.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.  
이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들을 편하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.

혹시, 1,2번 질문에서 답변을 많이 하지 않으시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목원이 있다면,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은 3번 질문에서 답변을 유도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.